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현황과 내실화 방안*

김은설¹⁾ 최윤경²⁾ 조혜주³⁾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고등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점, 요구 등을 파악하여 예비부모교육을 내실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등학교 시기’에 이루어지는 예비부모교육의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예비부모교육은 대부분 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교과외 경험은 거의 전무하였다. 이 시기에는 기술·가정 교과목에서 주로 강의와 시청각 자료의 활용을 통해 1학년 때에 수업이 이루어지며, 담당교사들은 수업진행의 애로사항으로 시청각 자료 및 교재교구의 부족, 교과서 내용의 불충분, 실습교육의 불가능 순으로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의 예비부모교육은 개인의 인격적 성숙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인성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며, 예비부모교육이 기술·가정 교과목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합교과의 운영을 통해 타과목에서도 부모됨 관련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예비부모교육, 고등학생, 가정·기술 교과, 양육

I. 서론

예비부모교육이란, 10대 미혼부모, 고등학생, 대학생, 미혼의 청년, 자녀출산 이전의 부부 등을 대상으로, 부모됨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어 자신감을 갖고 양육에 임하게 하며 자녀양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

* 본 논문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예비부모교육의 실태와 내실화 방안’의 일부를 발췌, 수정, 보완한 것임.

- 1)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2)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3)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는 교육이다(김정미, 2004a). 그러므로 이러한 예비부모교육의 기회는 개인의 바른 성장뿐 아니라 장차 사회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는 사건 중 하나인 자녀동반 자살은 자녀의 가치를 부모의 소유로 착각한 경우의 예일 수 있으며,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을 하여 부모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심지어 자녀를 유기, 성추행, 학대하는 것은 부모라는 의식조차 갖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해가 되는 일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고 있을 수 있다. 부모가 되는 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중요성을 인식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과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양육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여기에 예비부모교육의 의의가 있다.

핵가족화로 부모 세대로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현대의 젊은 부모들이 늘어나고, 이혼과 별거로 분리된 가정에서 양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난 젊은이가 많아졌으며, 미성년인 청소년이 부모가 되기도 하는 세대 등을 생각해 보면,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실제로 더 많은 예비부모교육에의 기회가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병래, 1991; Berk, 1997). 역사적으로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 십대 미혼모 연구를 통해 부모됨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사전지식을 전혀 갖지 못한 젊은 부모들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중요성이 인정되기 시작했다(나은경, 1993).

현대 사회에서 예비부모교육이 중요시 되는 것은 먼저 가족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이원영·김정미, 2007). 핵가족을 이루고 생활하는 현대 대부분의 젊은 부모는 과거의 확대 가족 제도에서처럼 3대가 함께 살면서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해 조언해 주던 윗세대의 도움을 받을 환경이 못 되어, 자녀양육을 혼자 알아서 수행해야 할 상황에 있다. 부모됨과 부모역할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갑자기 부모가 되면서 아동발달 및 자녀양육방법, 가족관계, 의사소통기술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녀양육 그 자체를 짐으로 여기게 되고, 부모역할의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이재연·김경희, 1999; 이은화·김영옥, 1999). 따라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부모시기에 수행하게 될 역할 및 태도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부모가 되기 이전에 학교교육 등의 기회를 통하여 체계적인 예비부모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또한 예비부모교육이 실시되는 청년기는 인간발달에 있어 자아정체성이 형성되

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바람직한 부모관과 양육관을 내면화하도록 돕는다면 부모가 된 이후에 실시되는 부모교육보다 훨씬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강한 자아개념은 건강한 부모역할 수행을 예측하게 하는 주요 변인이 되기 때문이다(김정미, 2004b).

한편 사회적으로 미혼모의 증가, 청소년 성 문제, 성폭행, 낙태 등 청소년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임신 및 출산의 과정, 인간생명의 존엄성, 낙태문제, 성교육, 결혼,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 등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기 및 청년기의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스트레스와 도전을 극복하고, 사회로부터 효율적인 지지를 받아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역할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이원영·김정미, 2007).

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미혼모 등의 사회적 문제로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예비부모교육이 시작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대상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이다(김정미, 2004b).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개방적으로 변해가는 연애편 등을 고려하면 올바른 성교육과 더불어 부모의 책임을 느껴보게 하는 예비부모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예비부모교육은 출산을 제고에 근본적인 동인(動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출산율 저하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저출산의 해결책을 양육비 보조 등 경제적 지원에서 찾고자 한다. 물론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유에만 매달리는 격이다. 아이를 낳고 키울 부모의 정서와 의식이 출산과 양육의 가치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는데 경제적 지원만으로 출산율 유도를 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김은설 외, 2008).

예비부모교육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인적자원인 다음 세대를 건전하고 역량 있게 키워갈 수 있는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적 지식과 정보를 미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는 부모됨의 의미를 생각함으로써 개인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이를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알게 되는 기회를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부터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며, 셋째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원영(1992)은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심리 및 발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준비를 미리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병래(2003)

는 예비부모교육은 정규교육기관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때 훌륭한 부모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예비부모교육은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히 제공되지도,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 능력을 준비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예비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될 필요가 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또한 필요한 업무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 리더십, 지도력이 필요하다.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나 이러한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비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인 고등학생과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 청소년기를 거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현황, 내용, 참여정도 등 실태를 조사하여 성, 연령, 지역 변인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점, 요구 등을 파악하여 예비부모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조사 절차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고등학생, 고등학교 가정·기술 교사, 대학교 1, 2학년의 3개 집단이다.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예비부모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등학생과 교사 집단을 조사하였고, 대학생은 고등학교 과정을 지나온 경험자로서 청소년기인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조사에 포함하였다. 신뢰 있는 조사를 위해 3개 집단은 각각 별도의 과정을 거쳐 표집하였으므로 동일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표집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해도 통계적 우연에 지나지 않음을 밝히는 바이다.

가. 고등학생 조사

국민 대부분이 이수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예비부모교육을 받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다. 표집은 고등학교 1, 2학년을 중심으로 남녀 각각 335명씩 총 770명을 선정하였고, 인문계, 실업계, 예술계 등 학교유형과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등 학생 성 구성 형태의 모든 모수를 고려하고 그 비율에 맞도록 비율 표집하였다. 또한 전국의 지역을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먼저 학교를 선정하고 적정 인원을 표집하였다. 조사 방법은 각각 개인별 면대면 설문조사로, 조사원이 선정된 학교에 가서 학생에게 설문지를 주고 그 자리에서 작성,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나.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목 담당 교사 조사

교과목을 통한 고등학생 예비부모교육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불어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모집단인 2,000여개 고등학교의 거의 50%에 해당하는 1,000개 고등학교를 표집하였으며, 일반계와 전문계 등 2개 학교유형과 남/여/공학 등 학생유형에 따라 6개의 셀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16개 시도 분포 비율에 따라 수를 책정하고 학교를 무선으로 선정하였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수 중 1,000개 고등학교를 무선 표집하는 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각각의 주소와 교명, 연락처를 획득한 후 각 학교 ‘기술·가정’ 교과 담당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고 회수하였다. 동일 교과를 지도하는 교사가 복수로 있는 경우에는 교과 주임 또는 경력이 가장 오래인 교사가 응답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조사는 2010년 10월 11일부터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집된 전국 1,000개 고등학교 중 271개 고등학교로부터 응답지가 회수되었다.

다. 대학생 조사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시기의 예비부모교육 경험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0년 6월 경 진행되었고, 조사원을 파견하여 개개인 면대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를 위한 표집은 ① 전국을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②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통계를 이용하여 각 권역별로 학교유형을 고려하면서 학생수를 파악하고 ③ 연구기간,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학생 수 전체에서 각 셀마다 0.05%를 계산하여 표집수로 정하였다. ④ 학생들을 표집할 학교의 수를 권역별로 표집하고 학교 당 12명 정도씩 일괄 할당하였을 때 필요한 학교 수

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전문대학이 학년제가 다른 점이 고려되고 또 예체능계 전공인 경우도 따로 분류하게 됨으로써 표집수가 조정되었다. 최종적으로 표집된 학교 수와 응답 학생 수는 총 78개 대학의 936명이다.

2. 조사 도구

조사는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각 조사 대상별로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고등학생용 설문지는 예비부모교육 경험과 인식, 교사대상 설문지는 고등학생 예비부모교육 현황과 의견, 그리고 대학생용은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여부와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의 <표 1>은 구체적 설문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조사 내용

대상	주제 영역	설문내용
고등학생	예비부모교육 경험과 인식	- 교과내용 및 흥미 - 실습여부 - 고등학생에 대한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기술가정교사	부모교육 현황	- 기술·가정 이수 학년 - 수업방법 - 수업진행의 애로점 - 교육내용 - 교과외 프로그램 유무
	고등학생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의견	- 필요성 인식 - 육아실습 필요성 -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제언
대학생	예비부모교육 경험과 의견	-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 내용 - 실습 필요성 - 효과적인 교육방법, 적정 내용 - 적정 교육 기간

3. 자료 분석

설문지를 수합하여 응답을 코딩하고 SPSS 19.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해 응답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계산하고, 집단 비교를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실태

가. 교과수업 현황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예비부모교육은 ‘가정·기술’ 교과목의 한 분야로, 전국 고교에서 기본 이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에 대한 현황을 담당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전국의 271개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기술·가정 교과목 수업이 몇 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1학년에서 배운다는 응답이 8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약 9%의 학교는 2학년에서 배운다고 응답하였다. 동일한 과목을 보다 심층적으로 배우는 심화과정 과목이 있을 수 있으나, 1, 2학년 모두에서 배운다는 비율이 2%가 채 되지 않으므로 가정·기술 심화 과목은 학교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 고교 기술·가정 교과목 이수 학년

단위: %(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과 2학년	1학년과 3학년	1,2,3학년 모두	계(수)
전체	87.9	9.1	0.0	1.9	0.4	0.8	100.0(265)
학교계열							
인문계	96.3	0.9	0.0	1.4	0.5	0.9	100.0(214)
실업/예술계	54.5	41.8	0.0	3.6	0	0.0	100.0(55)
학교특성							
남녀공학	86.3	9.2	0.0	2.6	0.7	1.3	100.0(153)
남고	100.0	0.0	0.0	0.0	0.0	0.0	100.0(42)
여고	79.4	17.6	2.9	1.4	0.0	0.0	100.0(70)

주: 조사대상은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목 교사임.

나. 교과 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학교에서 기술·가정 교과목에 의한 예비부모교육 외에 ‘부모되기’와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90%에 해당하는 학교에 ‘없음’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기술·가정 교과 외 학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유무

단위: %(명)

구분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있음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없음	계(수)	$\chi^2(df)$
전체	10.8	89.2	100.0(269)	
학교계열				
인문계	9.8	90.2	100.0(214)	1.12(1)
실업/예술계	14.8	85.2	100.0(54)	
학교특성				
남녀공학	10.5	89.5	100.0(153)	2.42(2)
남고	4.9	95.1	100.0(41)	
여고	14.3	85.7	100.0(70)	

주: 조사대상은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목 교사임.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학교에서 기술·가정 교과목 외에 부모교육 관련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3 ‘수능시험 후 교육 프로그램’, ‘재량/특활 수업’, ‘보건 수업’ 등 소수의 제한적인 사례들이 나타났다.

〈표 4〉 기술·가정 교과 외 부모교육 관련 학교 프로그램

기술·가정 교과 외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	사례수
수능 후 교육 프로그램	5
재량/특활 수업 활용	5
부정기 특강	2
보건 수업	11
기타	13
사례수	33

다. 자녀양육 관련 수업 진행 현황

기술·가정 교과에서 자녀양육 내용에 대한 수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의중심’과 ‘시청각 자료’의 활용이 주된 수업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와 시청각 자료 이용 외 다른 수업방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응답을 보였다. 교사특성별로 살펴보면,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시청각 자료의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20~30대 교사의 시청각 자료의 이용과 외국문헌의 참조, 실습 등의 수업방식 적용이 상대적으로 많고, 50대 이상 교사에게서 강의중심의 수업진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표 5 참조).

〈표 5〉 고교 기술·가정 교과목의 자녀양육내용 수업진행 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강의 중심	시청각 자료	외부 강사	실습	컴퓨터보조 개별학습	현장 방문	외국문헌 등 참고자료	기타
전체(271)	78.8	79.7	0.9	3.6	4.5	0.5	9.7	5.9
성별								
남	79.1	73.2	2.8	2.8	2.8	0.0	2.8	0.0
여	78.7	80.8	4.9	3.8	4.9	0.5	0.5	6.5
연령								
2~30대	78.9	82.8	0.0	6.3	4.3	2.1	20.0	6.4
40대	75.2	80.7	1.0	2.1	2.1	0.0	7.1	5.2
50대이상	83.0	75.9	1.3	3.9	7.8	0.0	6.6	5.3

주: 조사대상은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목 교사임.

실습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고등학생에게도 기술·가정 교과목에 아끼돌보기 등 관련 실습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6.4%였고 실습을 한다는 응답이 3.6%였는데, 이는 교사의 응답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학교계열에 따라서는 실업/예술계 학교에서 실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26명에게 실습횟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69.2%가 1회라고 응답하였으며, 실습유형에 대해서는 안아주기과 귀저기 갈기가 각각 48.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수유 44.0%로 나타났다.

〈표 6〉 교과목 내 부모교육 실습 포함 여부

단위: %(명)

구분	실습 포함	실습 없음	계(수)	$\chi^2(df)$
전체	3.6	96.4	100.0(713)	
학교계열				
인문계	2.9	97.1	100.0(553)	4.0(1)*
실업/예술계	6.3	93.8	100.0(160)	

주: 조사대상은 고등학생임.

* $p < .05$

수업을 통해 배운 교과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고 흥미로웠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임신과 출산 중요성’이 3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13.7%,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11.9% 순으로 가장 흥미로웠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이 가장 흥미로웠다고 응답하였으나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과 ‘부모자녀 관계 및

의사소통'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동발달'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흥미로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임신과 출산 중요성'에 대해 흥미로웠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는 대도시지역 학생들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흥미로웠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7〉 부모교육 내용별 학생들의 흥미도

단위: %(명)

구분	가족 가정 중요성	부모 자녀 관계	부모 역할 책임	결혼관 양성 평등	임신 출산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아동 발달	아동 양육 기술	계(수)	$\chi^2(df)$
전체	13.7	9.4	11.9	7.6	36.9	5.6	9.1	5.8	100.0(713)	
성별										
남	16.9	10.0	12.6	7.7	36.1	6.0	7.7	2.9	100.0(349)	17.2(7)*
여	10.7	8.8	11.3	7.4	37.6	5.2	10.4	8.5	100.0(364)	
지역별										
대도시	14.2	8.9	15.7	6.2	35.2	6.8	7.4	5.6	100.0(338)	34.4(14)**
중소도시	12.2	10.1	9.1	9.1	41.5	4.5	10.5	3.1	100.0(287)	
읍면	17.0	9.1	6.8	8.0	28.4	4.5	11.4	14.8	100.0(88)	

주: 조사대상은 고등학생임.

* p < .05

2.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의견 분석

가.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고등학생 시기에 예비부모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성인이 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의 예비부모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의 66.5%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여 많은 수가 고등학생 시기에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보통'의 응답 선택지가 없긴 했지만) 필요하다는 응답이 98.4%가 나와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8〉 고등학생 예비부모 교육의 필요성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한 편	보통	필요한 편	매우 필요	계
교사	0.4	2.2	-	22.3	75.1	100.0(269)
대학생	0.5	6.9	26.1	41.7	24.8	100.0(978)

주: 교사에 대한 질문은 4점 리커드 척도로, 5점 척도인 대학생용과 비교할 때 '보통이다' 항목이 없음.

* $p < .05$

나. 양육실습의 필요성

고등학교 예비부모 교육 중 아기 돌보기 실습이 필요한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의 52.1%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보통'이라는 응답도 33.7%를 차지하였다. 성별을 나누어 살펴보면 여자는 55.4%로 절반 이상이 아기 돌보기 실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남자는 49.4%가 '그렇다', 33.9%가 '보통'이라고 하였다.

〈표 9〉 고등학생 대상 아기 돌보기 실습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불필요	거의 불필요	보통	조금 필요	매우 필요	계	$\chi^2(df)$
대학생	2.0	12.0	33.7	31.6	20.7	100.0(978)	7.51(4)
남	2.6	14.1	33.9	30.6	18.8	100.0(499)	
여	1.5	9.8	33.4	32.8	22.6	100.0(479)	
교사	0.7	8.1	17.4	31.5	42.2	100.0(270)	16.12(4)**
남	4.7	14.0	23.3	30.2	27.9	100.0(43)	
여	0.0	7.1	16.4	31.4	45.1	100.0(226)	

** $p < .01$

다. 적정 교육기간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적정기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의 54.3%가 한 학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두 학기가 31.8%였다. 8.3%는 세 학기 이상 예비부모교육 수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5.6%는 고등학교 시기 부모교육의 실시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남녀 성별 응답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걱정 기간

단위: %(명), 점

구분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이상	필요없음	계	$\chi^2(df)$
전체	54.3	31.8	8.3	5.6	100.0(978)	
성별						
남	53.0	31.7	8.3	6.9	100.0(499)	3.77(3)
여	55.6	32.0	8.3	4.1	100.0(479)	

주: 조사대상은 대학생임.

*** $p < .001$

라. 교육 내용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학생 전체의 24.2%가 ‘성/임신/출산/피임’을, 23.9%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라고 응답한 반면 ‘아동양육기술’은 1.7%만이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28.4%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꼽은 반면, 여자는 26.6%가 ‘성/임신/출산/피임’을 꼽아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1〉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

단위: %(명)

구분	가족 이해 및 중요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역할 /양육의 어려움	결혼관 형성 및 의식	성/임신/출산/피임	아동에 대한 책임	아동 발달 지식	아동 양육 기술	계	$\chi^2(df)$
전체	14.4	23.9	17.7	7.9	24.2	3.4	6.6	1.7	100.0(978)	
성별										
남	16.1	28.4	16.5	7.5	22.0	2.8	5.0	1.8	100.0(499)	19.23(7)**
여	12.7	19.3	19.1	8.3	26.6	4.1	8.3	1.7	100.0(479)	
전공										
인문/사회/사범	15.4	24.1	16.6	9.5	23.0	3.3	6.6	1.5	100.0(477)	
이공/의학	14.0	20.6	18.6	7.0	26.5	4.1	7.0	2.3	100.0(441)	31.10(14)**
예체능/기타	9.7	46.8	21.0	1.6	17.7	0.0	3.2	0.0	100.0(60)	

주: 조사대상은 대학생임.

** $p < .01$

한편, 교사들에게 정책적으로 예비부모교육을 강화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1, 2 순위로 응답하게 한 결과, 1순위에서 ‘성, 임신·출산·피임, 태교의 중요성’과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에서는 ‘부모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와 ‘성, 임신·출산·피임, 태교의 중요성’ 순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성교육과 이를 통한 올바른 성가치관의 형성이 예비부모교육 강화 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조사되었다(표 12 참조).

〈표 12〉 고교 예비부모교육 강화 시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단위: %(명)

응답	1순위	2순위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19.2	7.1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간 의사소통	11.2	18.4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34.8	23.6
결혼관 및 양성평등의식	6.0	8.6
성, 임신·출산·피임, 태교의 중요성	23.6	23.2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1.6	4.1
아동발달(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에 관한 지식	2.0	8.6
아동양육지식	1.6	6.4
계(수)	100.0(250)	100.0(267)

주: 조사대상은 고등학교 가정·기술 교사임.

마. 교육 방식

대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대상 예비부모 교육 실시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의 39.7%가 ‘학교 교과 수업’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재량수업 등 특별활동’이 29.1%, ‘전문기관’이 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이와 상이한 응답을 하였는 바, ‘학교 교과 수업’을 지적한 비율이 66.7%로 매우 높은 반면, 나머지 다른 방식을 낮은 비율로 선택하였고, 전문기관이나 지역센터를 19.2% 정도 꼽았다.

〈표 13〉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
단위: %(명), 점

구분	학교 교과 수업	재량수업 등 특별활동	종교, 사회 단체 강의	전문기관, 지역센터	계	$\chi^2(df)$
대학생	39.7	29.1	5.3	25.6	100.0(978)	16.23(3)***
교사	66.7	11.9	1.9	19.2	100.0(270)	

*** $p < .001$

학교에서의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에서 더 나아가,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하였다. 즉, 예비부모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물어본 결과, 70% 이상의 교사가 기

술·가정 교과목 내에서 ‘육아관련내용 분량의 확대’가 가장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특강의 실시’와 ‘재량수업 시간의 활용’이라고 응답하여, 교과수업 내에서의 내용 및 분량의 확대가 고등학교 예비부모교육 강화의 우선순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4 참조).

〈표 14〉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수업 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응답	% (수)
재량수업 시간 활용	29.5(234)
특활활동 시간 활용	8.8(226)
특강 실시	30.9(233)
가정기술 교과목 내 육아관련내용 분량의 확대	70.9(247)
체육, 윤리 등 타교과목 수업 활용	4.1(221)
기타	4.1(222)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5.0(222)

주: 조사대상은 고등학교 가정·기술 교사임.

바. 수업의 어려움

자녀양육 내용이 포함된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애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청각 자료’와 ‘교재교구’의 부족에 대한 응답이 과반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과서 내용의 불충분성’과 ‘실습교육 불가능’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15〉 고교 자녀양육 관련 수업진행시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교과서 내용 불충분	시청각 자료 부족	교재 교구 부족	실습 불가능	사진 자료 오래됨	비전공 분야	연수 기회 부족	학생 흥미 부족	기타	어려움 없음	계(수)	$\chi^2(df)$
전체	13.4	32.0	20.4	10.8	6.3	1.9	2.2	5.6	1.9	5.6	100.0(269)	
성별												
남	4.7	32.6	27.9	4.7	4.7	7.0	0.0	9.3	2.3	4.3	100.0(117)	28.71(18)*
여	14.7	32.0	19.1	12.0	6.7	0.9	2.7	4.9	1.8	1.7	100.0(60)	
연령												
2~30대	13.3	23.3	21.7	16.7	10.0	3.3	0.0	5.0	5.0	1.7	100.0(60)	28.72(18)**
40대	9.4	39.3	17.1	11.1	4.3	1.7	4.3	7.7	0.9	4.3	100.0(117)	
50대이상	17.8	28.9	23.3	6.7	6.7	1.1	1.1	3.3	1.1	10.0	100.0(90)	

주: 조사대상은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사임.

* $p < .05$, ** $p < .01$

효과적인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는 구체적인 시청각 자료와 교구의 구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타 응답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수업시수 부족으로 자세히 가르치기 어렵다’ 등의 할당된 시간 부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여교사보다 남교사의 경우가 ‘교재교구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인식했으며, 여교사는 ‘교과서 내용의 불충분함’과 ‘실습교육 불가능’에 대해 더 많이 응답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예비부모교육은 인생의 어느 발달 시점에서든 필요한 과정이지만, 특히 고등학생 시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발달적으로 청소년기의 막바지에 이르러 성인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10대의 임신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라는 측면에서 요구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출산을 제고 의식을 청소년기부터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국가적 필요성이기도 하며, 예비부모교육이 국민 모두가 접해야 하는 주요한 과정임을 생각한다면 보편적 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서 충실히 배우도록 해야 하며 더 이상 미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은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보며, 현재 가정 내 가족관계를 개선해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부모가 되기 훨씬 전인 고등학생기의 예비부모교육은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생 시기 예비부모교육의 내실화는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 특히 고등학생 시기의 예비부모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바탕을 두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1학년 1학기에 대부분 배정된 부모교육관련 수업을 2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 후반에 배정을 하여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기에 보다 가까운 시기에 내용을 접하게 하거나, 현재 한 학기만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과정을 1~2학년 동안 각 1학기씩 두 학기로 나누어 가르치는 편이 내용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에 대한 예비부모교육은 교과목 이외의 별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관련 교과목 교육을 강화하는 데 강조점을 두는 방안이며, 두 학기 교육에 대한 선호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음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둘째, 교사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교과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시청각 자료를 풍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 양육과 관련한 실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들이면, 그 대안으로서 수업을 입체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양한 교육매체이며, 많은 교사들이 의존하고 있는 시청각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풍부하게 공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관련 기관과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셋째,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등학생 시기의 예비부모교육 내용은 아직 요원해 보이는 구체적인 양육기술이나 방법과 관련한 것보다는 청소년이 가진 흥미를 충족시키고 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등학생이 가장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내용은 임신, 출산과 관련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되 부모의 역할과 이로 인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현재 교과목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유용한 반면 진부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지닌 지식의 정도와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소한 임신과 출산, 피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심층적인 모든 지식을 청소년기에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10대 임신의 위험성과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교육적 기능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임신과 양육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미혼 및 청소년기에 한정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토록 하고, 부모됨에 대한 근본적인 충족감, 생산성으로 인한 성취감, 인생에서의 자녀의 의미 등 정상적 출산에 따르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자녀 출산의 의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나아가 국가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점차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고등학교 예비부모교육의 큰 방향을 볼 때, 부모되기의 중요함, 양육의 어려움 등을 동시에 이해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적 성숙을 유도하여 인성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와 자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며, 바르게 성장한다는 것, 올바른 인격체로 교육한다는 것의 의미 등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 풍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비단 기술·가정 교과목에만 의존하기보다 도덕, 윤리, 국어, 사회, 영어 등 통합교과적인 측면에서 부모되기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면, 10대 임신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읽을거리를 국어나 영어에서 제시한다든지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윤리적 내용, 여성취업과 저출산의 관계 및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 육아의 남녀 간 분담 등을 사회 과목에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교육 실습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나, 연간 1회라도 재량수업, 특별활동 또는 봉사활동 점수를 활용해서 보육시설 방문이나 교구를 활용한 실습을 가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육아와 부모됨이 자신의 일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환경이 고등학교에서 시작하여 대학교, 군대, 사회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책의 홍보 측면에서, 양육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복지혜택,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과 그것에 대한 접근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교육내용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관련 정책과 제도가 해마다 변화하며 예산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육을 국가가 얼마나 중요하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인식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 정보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래에 부모가 될 청소년을 준비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중대 사업으로서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은설·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미(2004a).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유아교육학회지**, 8(4), 65-85.
- 김정미(2004b).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나은경(1993). 고등학생의 부모기에 대한 이해와 유아기 자녀교육에 관한 태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래(1991). 결혼 전 여성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래(2003). 대학생들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유아교육연구**, 23(1), 133-152.
- 이원영(1992). 부모교육론. 서울: 교문사.
- 이원영·김정미(2007) 대학생들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서울북카페

이은화·김영옥(1999).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이재연·김경희(1993).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Berk, L. E.(1997). *Child Development (4th Ed.)*. New York: Allyn and Bacon.

·논문접수 2011년 9월 30일 / 수정본 접수 2012년 5월 30일 / 게재 승인 6월 15일

·교신저자: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메일 eskim@kicce.re.kr

ABSTRACT

Pre-Parent Education for High-School Students and Its Improvement

Eunseol Kim Yoonkyong Choi Hyejoo Ch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pre-parent education for high-school students. By examining challenges, improvements and the need for pre-parent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schemes on how to improve and promote pre-parent education for high-school student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high-school students, university students and teachers.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status of parent education for high-school students indicates that parent education often occurs within the regular school curriculum rather than the extracurricular. Pre-parent education is done by lecturing and audio-visual materials i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ourse, primarily targeting the first grade high-school students. The participant teachers highlighted the challenges in teaching, which are lack of audio-visual materials and educational resources, of practice based teaching and insufficient textbook content. Th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pre-parent education should aim for prospective parents to induce an individual's personal maturity, ultimately providing character education.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pre-parent educ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ourse, but is recommended for its comprehensive potential in integrating with other subjects.

Key words: pre-parent education, high-school students, home-economy & technology class, parenting